

• 특별기고

수능 등급제에 관한 몇 가지 소견

최병기 |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교사

I. 들어가는 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능 등급제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되었다. 말로는 보완이라고 하지만 백분위점수와 표준점수까지 제공하는 마당에 정시모집에서 등급을 활용하는 대학이 과연 있을까? 수능 등급은 아마도 수시모집의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될 것이다. ‘수능 등급제’ 그렇게나 잘못 만든 제도였나? 등급제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했던 대학들은 왜 정시모집에서 모집인원의 일정비율을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수능우선선발전형’, ‘수능 100% 전형’ 을 실시하였는가? 본고에서는 고교 교사의 입장에서 등급제의 도입배경과 장·단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등급제가 정말로 잘못 만든 제도였는지, 적용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등급제의 도입 배경

2004년 10월 말에 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가히 혁명적 제도였다. ‘수능 등급제’, ‘등급제로의 전환을 통한 내신의 비중 강화’, ‘대학별고사, 특히 논술의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 제도의 발표 초기에는 ‘수능 등급제로는 변별력이 없다’, ‘대학별고사의 강화로 인하

여 사교육비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학교 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내신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등의 논란으로 뜨거웠지만, 그 해 수능 부정사건이 터진 이후로는 이에 대한 논란도 잠잠해졌다. 그 이후, 수능부정에 잇따른 대형 교육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됨으로써 교육부는 새 대입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할 겨를도 없었다. 실제 일선학교에서는 ‘등급제’가 무엇인지, 논술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등 허둥댈 수밖에 없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회를 틈타 일부 사교육기관에서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저주받은 08학번’ 등의 용어를 양산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였고, 2005년에는 사상 최초로 고1 학생들의 촛불집회까지로 사태가 악화되었다. 이때도 교육부는 새 대입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 등은 생각도 못하고 눈앞의 사태를 막기에 급급하였다. 발표 초기부터 우왕좌왕으로 일관되어온 새 대입제도는 적용 첫 해인 2007년에 본격적으로 논란이 재 점화되었다. 일부 사립대학들의 모순적 행동과 내신 성적 무력화 시도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더니, 수능 후에는 난이도 조절 실패 및 오답시비로 인한 모든 책임이 등급제의 모순으로 귀착되었다. 급기야 인수위에서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을 발표하면서 등급제를 실시 1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등급제는 왜 도입되었는가? 왜 등급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가? 교육부는 '2008 대입제도 바로 알기'라는 발표 자료를 통하여 '새 제도는 이러한 사교육 위주의 악순환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의 중심을 학교 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과 결과가 공정하게 기록되며, 그 기록들이 대학 입학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대입제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 수능성적의 변별력을 낮추었고, 낮추어진 부분을 학생부로 채우고 대학별고사는 보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라고 등급제의 도입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수능의 비중을 낮추고 학생부의 비중을 높여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순진한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필자는 등급제가 도입된 근본적인 이유를 대입 전형요소의 제자리 찾기로 본다. 대입전형에는 3가지 전형요소가 있다. 국가가 평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수능과 일선 고교가 평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부, 대학에서 평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학별고사가 그것이다. 수능을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점수로 반영하였던 2007학년도까지는 정시 모집에서 수능 이외의 변별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오로지 수능 1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학생부는 30~50%를 반영한다고 해도 그것은 허울에 불과하였다. 상위권 일부 사립대학들은 알게 모르게 지원학생들의 대부분을 학생부 만점을 주는 방향을 견지했었다. 각 대학들이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고교 간 학력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과 고교의 학생부 성적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고교 간 학력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다. 적어도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장악하는 한 학력 격차가 해소될 수 없다는 것도 맞다. 그렇지만 고교의 학생부 성적이 너무 부풀려졌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과거 절대평가 방식에서는 그 논리가 맞을 수 있지만, 현재의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학생부의 교과 성적 역시 수능과 마찬가지로 9등급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하지만 수능은 동점자일 경우 상위석차를 인정하지

만, 학생부 교과 성적은 동점자일 경우 중간석차를 인정한다. 즉, 수능보다도 더 엄격한 상대평가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부의 모든 평가 요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교과 성적만 하더라도 과목별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및 이수 학생 수까지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측에서 이를 활용하여 학생부 성적을 산출한다면 좀 더 치밀하게 변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과거 절대평가 시절에도 석차백분율을 공개하고 있었지만, 일부 상위권 사립대학들이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아마도 특목고 출신자가 아니었나 싶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어 성적만을 반영하였다. 이것이 내신 부풀리기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이다. 만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신입 사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학점을 중요한 전형요소로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학점의 비율을 철저히 지키는 대학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각 대학들은 수능은 영역별로 등급 점수를 부여하고, 반영 비율과 등급 간 구분점수도 달리하는 등 다양한 척도를 통하여 반영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3년 과정에서 배우는 수십 과목의 학생부 교과 성적은 단일 등급으로 반영하고 있다. 일부 상위권 사립대학은 그것도 모자라서 해당 대학에 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등급에는 등급 간 구분점수를 0.4~0.5점만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부 성적이 수능 1등급을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급제 도입을 통하여 학생부의 실질반영률을 높이고, 수능의 비중을 낮추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허황된 장밋빛 기대였던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는 이런 식의 강제적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룩될 수가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색은 하지 않고 단지 평등권만을 강조하는 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혼란만 부추긴 셈이 된 것이다.

Ⅲ. 등급제 논란의 실제

등급제가 논란의 배경이 되는 이유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입시에서 수능 비중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등급제가 도입되었지만, 막상 2008학년도 입시가 시작되고 보니 수능의 비중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 발표만 믿고 지난 3년 간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이렇게 된 데는 특히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의 책임이 너무도 크다. 이들은 학생부 비중을 높이겠다는 기존의 발표를 뒤집고 학생부를 무력화하는 경쟁을 하는 듯 했다. 이들 대학은 수능비중이 강화된 전형을 신설하거나 학생부 등급 간 점수간격을 좁혀 고의로 학생부 비중을 낮추는 등 등급제를 외면했다. 반면에 등급제가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말하던 이들 대학들이 2007년 봄에는 앞 다투어서 정시모집에서 '수능 100%전형' 또는 '수능 우선전형' 등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너무 역설적이지 않은가? 이들 대학은 어떻게든 학생부를 버리고 수능과 논술만으로 선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원의 난이도 조절 실패와 출제오류는 폐지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수리 가형에서 한 문제만 틀렸는데 2등급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선택과목에 따라 누구는 2점짜리 하나를 틀렸는데 2등급이고, 누구는 3점짜리 하나를 틀렸는데도 1등급이 되었다는 풍문도 거리낌 없이 떠돌았다. 물리 오답 시비는 등급제 폐지에 썩기를 막는 꼴이 되었다. 역대 수능에서 오답 시비가 벌어졌던 것은 2004학년도 입시에서도 있었다. 당시 언어영역 17번 문제를 두고 학계에서 복수정답 인정에 관한 논란이 뜨거웠다. 그 때 평가원은 수능 1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정답을 인정하여 수능의 신뢰도와 공신력이 큰 문제가 되었다. 그래도 당시는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기 전에 복수정답을 인정함으로써 약 40여만 명의 학생이 2점씩 올랐어도 혼란이 작년보다는 적었다. 이번에는 수능이 끝나자마자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평가원

은 철저히 무시하였고, 성적표를 배부하고 나서 한국물리학회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을 때에도 인정하지 않았다. 평가원의 출제 및 관리 능력이 의심스러웠던 대목이다. 그 이후 복수정답을 인정하자마자 수시 2학기 재사정 및 원서마감일 연장 등의 혼란이 있었다. 이것은 국가 기관으로서, 수십만 명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시험의 시행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하여 등급제는 인수위에서 발표하기도 전에 폐지되는 것으로 여론이 흘러갔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수년 간 준비되었던 제도가 실제로 도입 1년 만에, 그것도 결과도 보기 전에 폐지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직 정시모집의 합격자 발표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등급제를 폐지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을까?

등급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다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했던 곳은 수도권 상위권 사립대학들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그들 대학들이 스스로 뒤엎었다. 이번 정시모집에서 '수능 100%전형'과 '수능 우선전형'을 실시했던 대학들이 바로 그 대학들이다. 등급만으로는 도저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대학들이 왜 그런 전형을 실시했을까? 그들 대학에 진지하게 묻고 싶은 부분이다. 둘째는 불합리성이다. 일정 점수대를 묶어 같은 등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능 각 영역의 총점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등급 커트라인에 걸려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불투명성이다. 수험생의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점수가 정확히 몇 점인지, 왜 그 등급이 나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불합리성과 불투명성은 수능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면 제기하기 어려운 논리이다. 수능은 국가가 평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격이 다른 시험과 다르다. 수능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점수를 제공하기 위한 시험

이다. 만일 수능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면 당연히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정 점수대를 묶어서 같은 등급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수능시험의 성격이 다른 시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이는 본질을 오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등급제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다른 영역은 잘 했는데, 어느 한 영역(이번 수능에서는 수리 가형이 표적이 되었다)에서 한 문제 차이로 인하여 등급이 내려갔기 때문에 목표 대학의 지원을 포기하고 재수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학생이 전년도처럼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를 제공하는 체제였다면 목표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좀 더 생각해볼 문제이다. 만일 다른 영역을 모두 만점을 받았다는데, 어느 한 영역만 한 문제로 인하여 2등급이 되었다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영역에서 1등급을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람들의 공통 심리는 자기에겐 유리한 것은 언급

을 하지 않지만, 자기에겐 불리한 것은 침소봉대하여 언급한다.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었듯이 수능 등급제로 인하여 피해를 본 학생들도 역시 같은 논리일 것이다. 등급제로 피해를 본 학생과 이득을 본 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이득을 본 학생이 훨씬 많아야한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은 왜 보도가 안 되는 것일까?

IV. 수능 등급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수능 등급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수능과 학생부, 대학별고사를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현 입시제도에서 각 전형요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최상의 제도였다.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를 제공하는 수능이 '가는 실선으로 한 줄 세우기'였다면, 등급제에 의한 수능은 '굵은 동아줄로 한 줄 세우기'였다. 굵은 동아줄은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다. 넓은 단면적에서 합격생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수능

표 1. 세 대학의 영역별 등급 구분점수

등 급	언어			수리 가			수리 나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1	200.0	100.0	120.0	200.0	100.0	120.0	200.0	100.0	120.0
2	196.0	97.0	112.5	192.0	96.0	112.51	94.0	96.0	112.5
3	192.0	93.0	105.0	184.0	91.0	105.0	183.0	91.0	105.0
4	185.0	89.0	97.5	175.0	86.0	97.5	171.0	86.0	97.5
5	175.0	84.0	90.0	165.0	80.0	90.0	157.0	80.0	90.0
6	163.0	80.0	82.5	153.0	75.0	82.5	145.0	75.0	82.5
7	150.0	76.0	75.0	142.0	70.0	75.0	138.0	70.0	75.0
8	137.0	73.0	67.5	132.0	66.0	67.5	134.0	66.0	67.5
9	128.0	71.0	60.0	126.0	63.0	60.0	126.0	63.0	60.0
등 급	외국어			사탐			과탐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1	200.0	100.0	120.0	100.0	100.0	40.0	100.0	100.0	40.0
2	197.0	97.0	112.5	98.0	98.0	37.5	97.0	98.0	37.5
3	191.0	93.0	105.0	96.5	95.0	35.0	95.5	95.0	35.0
4	182.0	89.0	97.5	94.0	92.0	32.5	93.0	92.0	32.5
5	169.0	84.0	90.0	91.0	88.0	30.0	90.0	88.0	30.0
6	158.0	80.0	82.5	88.5	85.0	27.5	87.0	85.0	27.5
7	146.0	76.0	75.0	85.5	82.0	25.0	84.5	82.0	25.0
8	139.0	73.0	67.5	83.5	80.0	22.5	83.0	80.0	22.5
9	133.0	71.0	60.0	82.0	78.0	20.0	82.0	78.0	20.0

이외의 전형요소가 개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상위권에서는 단면적이 좁기 때문에 수능만으로도 변별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등급은 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수능만으로는 변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증명해보고자 2007년 12월 7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 성적관련 보도자료 중에서 수능 도수분포자료를 재가공해보았다.

재가공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몇 가지 조건을 전제하였다. 첫째는 정확한 도수 산정을 위해서 총 응시인원에서 분석 대상 영역 및 과목을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은 도수는 삭제하였다. 둘째는 등급점수 방식은 고려대와 성균관대(기군 인문계열), 연세대의 반영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려대 방식은 언어와 수리, 외국어, 탐구의 등급 간 급간 점수가 모두 다르다. 성균관대 방식은 언어와 수리, 외국어의 등급 간 급간 점수가 일치하고 탐구만 다르다. 이 방식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방식과 동일하지만, 급간 점수는 다르다. 마지막으로 연세대 방식은 언어와 수리, 외국어 중에서 두 영역의 등급 간 점수는 동일하지만, 한 영역의 등급 간 구분점수는 다르다. 물론 탐구영역의 등급 간 구분점수도 다르다. 많은 대학들의 등급 반영 방법이 이 세 대학의 경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흐름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셋째, 탐구영역은 2과목 반영, 3과목 반영, 4과목 반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여러 대학들이 탐구영역을 2과목에서 4과목까지 다양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표 1 참조)

이 분석은 평균 등급이 나오는 경우의 수, 같은 평균 등급에서 등급 조합 경우의 수, 같은 평균등급에서의 등급 점수 차이 등을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등급조합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경우의 수가 나타나고 있고, 평균등급은 탐구영역을 많이 반영할수록 경우의 수가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탐구를 4과목 반영할 경우 평균등급 경우의 수는 129가지나 나오며, 탐구 3과목 반영할 경우 97가지, 2과목 반영할 경우 6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등급조합 경우의 수도 탐구영역 반영에 따라 달라진다. 4과목 반영할 때 40,472가지, 3과목 반영할 때 15,243가지, 2과목 반

영할 때 7,309가지나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 인문계와 자연계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다.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수리 가형과 나형, 사탐과 과탐의 등급 점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하의 논의에서는 인문계의 자료만을 게재 하였다.

1. 탐구 4과목 반영의 경우

언어와 수리 나형, 외국어와 사탐 4과목 모두를 응시한 인원은 260,893명이다. 탐구를 4과목 반영할 경우 평균 등급 경우의 수는 129가지이다. 하지만 등급조합 경우의 수는 무려 40,472가지나 된다. 특히 평균등급 4.500에서는 등급조합 경우의 수가 633가지나 되며, 도수도 3,557명이다 된다. (표 2 참조)

평균 등급 구간을 0.5점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등급조합 경우의 수가 완벽한 정규분포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림 1 참조)

등급조합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 평균 4.500 등급의 등급점수 차이는 더욱 크다. 고려대의 경우 61.625점, 연세대의 경우 13.250점, 성균관대의 경우 30.000점의 차이가 있다. 평균 4.500등급인 수험생은 3,557명인데, 전체 응시인원(언어, 수리나, 외국어, 탐구 4과목 응시자 : 260,893명) 대비 1.36%이다. (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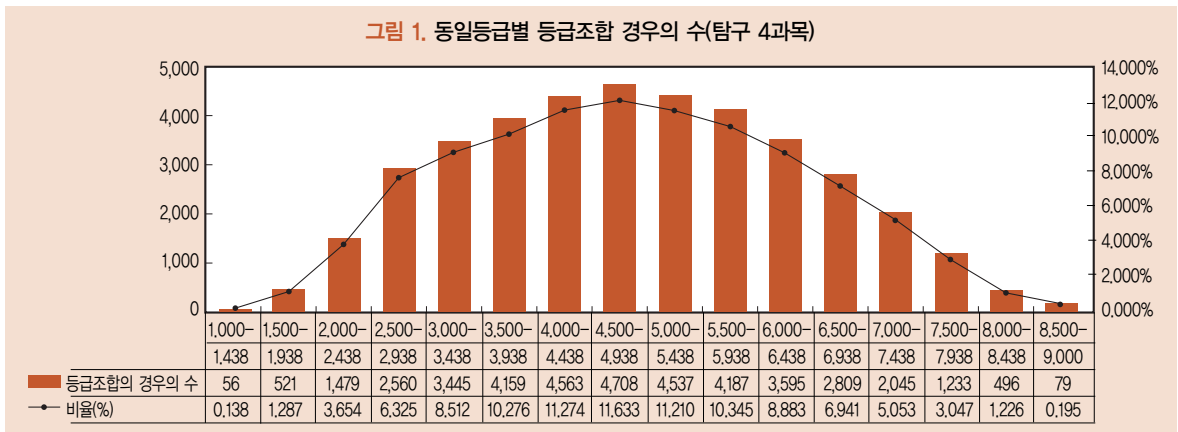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고려대 방식의 경우 평균등급 3.875에서 등급점수 최대 차이는 63.875점이고 평균은 37.070점이다. 연세대 방식은 평균 등급 5.438에서 등급점수 최대 차이는 17.250점이고 평균은 8.760점이다. 성균관대 방식은 3가지 평균등급(3.313, 4.000, 4.688)에서 최대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점수 차이는 35.000점이고 평균은 19.922점이다. 이를 통하여 영역간 등급점수가 모두 다른 방식의 등급점수 차이가 크고, 언어/수리/외국어와 탐구의 2가지로 구분되는 것이 차이가 가장 작음을 볼 수 있다. 즉 경우의 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변별력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참조)

같은 평균등급에서의 도수도 최소 15명(평균등급 8.938)에서 최대 3,831명(평균등급 5,063)까지의 차이가 있으며,

표 2. 동일등급별 등급조합 경우의 수(탐구 4과목)

등급 평균	등급조합 경우의 수	빈도수	등급 평균	등급조합 경우의 수	빈도수	등급 평균	등급조합 경우의 수	빈도수	등급 평균	등급조합 경우의 수	빈도수
1.000	1	454	3.000	408	2,315	5.000	601	3,710	7.000	284	1,622
1.063	1	526	3.063	385	2,271	5.063	552	3,831	7.063	280	1,643
1.125	2	433	3.125	427	2,484	5.125	591	3,739	7.125	280	1,515
1.188	3	382	3.188	433	2,513	5.188	546	3,626	7.188	268	1,494
1.250	8	640	3.250	451	2,532	5.250	587	3,678	7.250	258	1,428
1.313	9	748	3.313	442	2,559	5.313	548	3,635	7.313	227	1,292
1.375	13	830	3.375	452	2,638	5.375	563	3,631	7.375	241	1,306
1.438	19	734	3.438	447	2,648	5.438	549	3,601	7.438	207	1,215
1.500	31	896	3.500	503	2,736	5.500	555	3,481	7.500	205	1,171
1.563	32	1,011	3.563	481	2,884	5.563	515	3,391	7.563	184	1,111
1.625	50	1,075	3.625	509	2,933	5.625	545	3,416	7.625	183	1,071
1.688	51	1,082	3.688	508	2,968	5.688	535	3,331	7.688	152	1,003
1.750	75	1,112	3.750	537	3,106	5.750	529	3,318	7.750	152	914
1.813	77	1,209	3.813	538	3,120	5.813	497	3,273	7.813	120	911
1.875	98	1,222	3.875	527	3,127	5.875	518	3,090	7.875	129	817
1.938	107	1,315	3.938	556	3,183	5.938	493	3,034	7.938	108	792
2.000	130	1,343	4.000	562	3,193	6.000	503	3,064	8.000	100	731
2.063	143	1,454	4.063	554	3,259	6.063	472	2,891	8.063	88	719
2.125	164	1,459	4.125	571	3,302	6.125	466	2,763	8.125	84	604
2.188	169	1,489	4.188	568	3,427	6.188	453	2,688	8.188	57	575
2.250	194	1,593	4.250	591	3,492	6.250	440	2,621	8.250	57	512
2.313	195	1,653	4.313	555	3,533	6.313	416	2,549	8.313	44	399
2.375	240	1,734	4.375	583	3,540	6.375	445	2,438	8.375	38	366
2.438	244	1,800	4.438	579	3,528	6.438	400	2,395	8.438	28	302
2.500	267	1,868	4.500	633	3,557	6.500	406	2,214	8.500	29	255
2.563	251	1,765	4.563	566	3,687	6.563	371	2,165	8.563	17	194
2.625	314	1,943	4.625	585	3,673	6.625	377	2,162	8.625	12	165
2.688	307	1,971	4.688	585	3,816	6.688	352	2,078	8.688	8	116
2.750	323	2,046	4.750	580	3,622	6.750	348	2,029	8.750	6	70
2.813	329	2,083	4.813	597	3,738	6.813	330	1,890	8.813	3	57
2.875	388	2,202	4.875	605	3,726	6.875	329	1,786	8.875	2	36
2.938	381	2,210	4.938	557	3,771	6.938	296	1,762	8.938	1	15
									9.000	1	29

그림 1. 동일등급별 등급조합 경우의 수(탐구 4과목)



• 특별
기고

표 3. 최대 등급조합 경우의 수에서의 등급점수 차이(탐구 4과목)

구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평균등급	4,500	4,500	4,500	
등급조합경우의 수	633	633	633	
빈도수(명)	3,557	3,557	3,557	
등급점수	최대값	644,625	354,000	330,000
	최소값	583,000	340,750	300,000
	차이	61,625	13,250	30,000
	평균	610,337	345,890	313,041

표 4. 등급점수가 최대로 차이가 나는 경우(탐구 4과목)

구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급평균	3,875	5,438	3,313	4,000	4,688
등급조합경우의 수	527	549	442	562	585
빈도수(명)	3,127	3,601	2,559	3,193	3,816
최대값	661,875	342,500	366,875	345,000	328,125
최소값	598,000	325,250	331,875	310,000	293,125
차 이	63,875	17,250	35,000	35,000	35,000
평 균	631,124	329,843	343,990	325,934	307,886

평균 2,022.43명이나 된다. 하지만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에서는 같은 평균 등급에 도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를 근거로 최상위권 일부 사립대학들이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만들었을 것이다.

2. 탐구 3과목 반영의 경우

언어와 수리 나형, 외국어와 사탐 3과목을 응시한 인원은 272,731명이다. 탐구를 3과목 반영할 경우 평균 등급 경우의 수는 97가지이다. 하지만 등급조합 경우의 수는 4과목을 반영할 때보다는 적지만 15,243가지나 된다. 특히 평균등급 4.750에서는 등급조합 경우의 수가 294가지나 된다. 같은 평균등급에서의 도수도 최대 5,356명(평균등급 4.917)에서 최소 18명(평균등급 8.917)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며, 같은 평균등급 평균 도수는 2811.66명이나 된다. 사탐을 4과목 반영할 때보다 도수의 크기가 커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반영과목 경우의 수가 늘수록 변별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5 참조)

평균 등급 구간을 0.5점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4과목을 반영했을 때와 같이 등급조합 경우의 수가 완벽한 정규분

포곡선을 그리고 있다.

등급조합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294개) 평균등급 4.750의 등급점수 차이는 더욱 크다. 고려대의 경우 58,667점, 연세대의 경우 9,333, 성균관대의 경우 30,000의 차이가 있다. 이 평균등급의 빈도수는 5,069명으로 전체 응시인원(언어, 수리 나, 외국어와 사탐 3과목 모두 응시자 : 272,731명) 중 1.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참조)

등급점수가 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고려대 방식의 경우에는 평균등급 4.333에서 등급점수 최대 차이는 68,333점 평균은 35,674점이다. 연세대 방식은 평균등급 6.917에서 등급점수 최대 차이는 10,333점이고 평균은 6,371점이다. 성균관대 방식은 무려 6가지 평균등급(3.250, 3.500, 4.000, 4.333, 4.583, 4.667)에서 최대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점수 차이는 35,000점이고 평균은 19,485점이다. (표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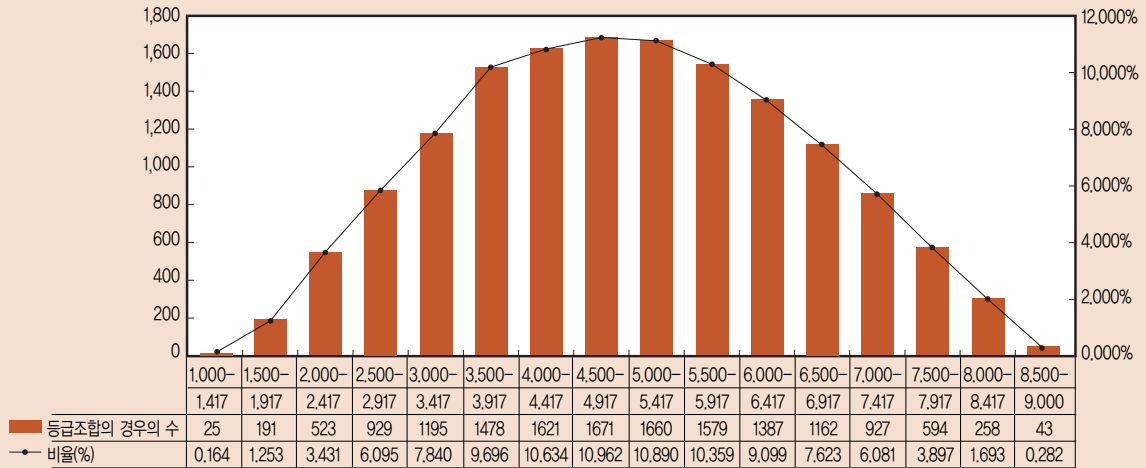
3. 탐구 2과목 반영의 경우

언어와 수리 나형, 외국어와 사탐 2과목을 응시한 수험

표 5. 동일등급별 등급조합 경우의 수(탐구 3과목)

등급 평균	등급조합 경우의 수	빈도수	등급 평균	등급조합 경우의 수	빈도수	등급 평균	등급조합 경우의 수	빈도수	등급 평균	등급조합 경우의 수	빈도수
1.000	1	1,183	3.000	195	3,253	5.000	289	5,285	7.000	178	2,260
1.083	1	601	3.083	175	3,365	5.083	264	5,006	7.083	155	2,093
1.167	2	415	3.167	188	3,479	5.167	272	5,150	7.167	161	2,109
1.250	6	1,417	3.250	214	3,557	5.250	289	5,073	7.250	167	1,847
1.333	6	1,205	3.333	204	3,641	5.333	274	4,966	7.333	140	1,834
1.417	9	917	3.417	219	3,780	5.417	272	5,027	7.417	126	1,701
1.500	18	1,682	3.500	236	4,025	5.500	276	4,828	7.500	130	1,578
1.583	18	1,532	3.583	235	4,077	5.583	262	4,684	7.583	108	1,451
1.667	25	1,391	3.667	249	4,237	5.667	260	4,704	7.667	100	1,400
1.750	41	1,769	3.750	264	4,287	5.750	260	4,460	7.750	102	1,301
1.833	42	1,825	3.833	237	4,157	5.833	254	4,308	7.833	86	1,102
1.917	47	1,814	3.917	257	4,449	5.917	267	4,268	7.917	68	1,085
2.000	71	1,955	4.000	267	4,586	6.000	255	3,953	8.000	69	991
2.083	64	2,129	4.083	260	4,587	6.083	224	3,733	8.083	55	836
2.167	72	2,108	4.167	270	4,919	6.167	236	3,837	8.167	45	798
2.250	109	2,346	4.250	283	4,906	6.250	248	3,423	8.250	40	596
2.333	101	2,404	4.333	263	4,887	6.333	218	3,340	8.333	28	442
2.417	106	2,513	4.417	278	4,928	6.417	206	3,206	8.417	21	378
2.500	142	2,573	4.500	275	5,173	6.500	210	3,042	8.500	19	292
2.583	129	2,602	4.583	287	5,089	6.583	211	2,993	8.583	9	183
2.667	151	2,847	4.667	277	5,261	6.667	193	2,900	8.667	6	118
2.750	171	2,965	4.750	294	5,069	6.750	195	2,580	8.750	5	88
2.833	172	2,909	4.833	269	5,224	6.833	181	2,475	8.833	2	39
2.917	164	3,091	4.917	269	5,356	6.917	172	2,432	8.917	1	18
									9.000	1	33

그림 2. 동일등급별 등급조합 경우의 수(탐구 3과목)



• 특별기고

표 6. 최대 등급조합 경우의 수에서의 등급점수 차이(탐구 3과목)

구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평균등급	4.750	4.750	4.750	
등급조합경우의 수	294	294	294	
빈도수(명)	5,069	5,069	5,069	
등급점수	최대값	632.667	344.667	322.500
	최소값	574.000	335.333	292.500
	차이	58.667	9.333	30.000
	평균	597.472	338.559	304.792

표 7. 등급점수가 최대로 차이가 나는 경우(탐구 3과목)

구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3,250	3,500	4,000	4,333	4,583	4,667
등급평균	4.333	6.917	3,250	3,500	4,000	4,333	4,583	4,667
등급조합경우의수	263	172	214	236	267	263	287	277
빈도수(명)	4,887	2,432	3,557	4,025	4,586	4,887	5,089	5,261
최대값	653.000	309.667	367.500	360.000	345.000	336.667	329.167	328.333
최소값	584.667	299.333	332.500	325.000	310.000	301.667	294.167	293.333
차 이	68.333	10.333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평 균	610.761	302.715	343.673	337.097	323.722	314.611	308.510	328.333

생은 278,508명이다. 사탐을 2과목 반영할 경우 평균 등급 경우의 수는 65가지이다. 등급조합 경우의 수는 7,309 가지나 된다. 특히 평균등급 4.500에서는 등급조합 경우의 수가 238가지나 된다.^(표 8 참조)

평균 등급 구간을 0.5점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역시 등급조합 경우의 수가 완벽한 정규분포곡선을 그리고 있다.

등급조합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238개) 평균등급 4.500의 등급점수 차이는 더욱 크다. 고려대의 경우 61.750점, 연세대의 경우 14.000, 성균관대의 경우 35.000의 차이가 있다. 이 평균등급의 빈도수는 8,241명으로 전체(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탐 2과목 모두 응시자 : 278,508명) 대비 2.96%에 달한다.^(표 9 참조)

등급점수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고려대 방식은 평균등급 4.250에서 등급점수 최대 차이는 68.250점이고 평균은 39.408점이다. 연세대 방식은 평균등급 7.250에서 등급점수 최대 차이는 16.000점이고 평균은 8.562점이다. 성균관대 방식은 무려 6가지 평균등급(4.000, 4.250, 4.625, 4.750, 5.000, 5.625)에서 최대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는 35.000점이고 평균은

21.615점이다.^(표 10 참조)

등급 점수 차이는 탐구영역 반영 과목에 따라, 또한 등급점수 적용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어떤 방식이 가장 큰 편폭을 보이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보다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 대학에는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하기 때문에 해당 대학들의 과거 입시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의 도수분포를 연구한다면 대학들의 상황에 맞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동일등급별 등급조합 경우의 수(탐구 2과목)

등급 평균	등급조합 경우의 수	빈도수	등급 평균	등급조합 경우의 수	빈도수	등급 평균	등급조합 경우의 수	빈도수	등급 평균	등급조합 경우의 수	빈도수
1.000	1	1,908	3.000	150	5,352	5.000	231	8,044	7.000	134	3,419
1.125	1	462	3.125	120	5,201	5.125	183	7,530	7.125	106	2,980
1.250	5	2,742	3.250	168	5,774	5.250	222	7,955	7.250	115	2,917
1.375	5	1,173	3.375	142	5,748	5.375	176	7,158	7.375	82	2,469
1.500	14	3,186	3.500	202	6,564	5.500	223	7,499	7.500	96	2,371
1.625	13	1,856	3.625	161	6,151	5.625	176	6,716	7.625	69	1,971
1.750	30	3,333	3.750	201	6,855	5.750	212	6,780	7.750	68	1,857
1.875	24	2,458	3.875	159	6,621	5.875	156	6,006	7.875	48	1,627
2.000	51	3,621	4.000	221	7,467	6.000	192	6,058	8.000	45	1,310
2.125	42	3,122	4.125	168	7,126	6.125	151	5,297	8.125	30	1,036
2.250	79	3,936	4.250	228	7,966	6.250	180	5,263	8.250	28	772
2.375	59	3,676	4.375	178	7,375	6.375	144	4,644	8.375	13	476
2.500	108	4,338	4.500	238	8,241	6.500	160	4,685	8.500	14	310
2.625	87	4,171	4.625	186	7,532	6.625	125	4,054	8.625	4	152
2.750	123	4,770	4.750	219	8,324	6.750	152	4,078	8.750	4	79
2.875	98	4,565	4.875	173	7,876	6.875	114	3,451	8.875	1	19
									9.000	1	35

그림 3. 동일등급별 등급조합 경우의 수(탐구 2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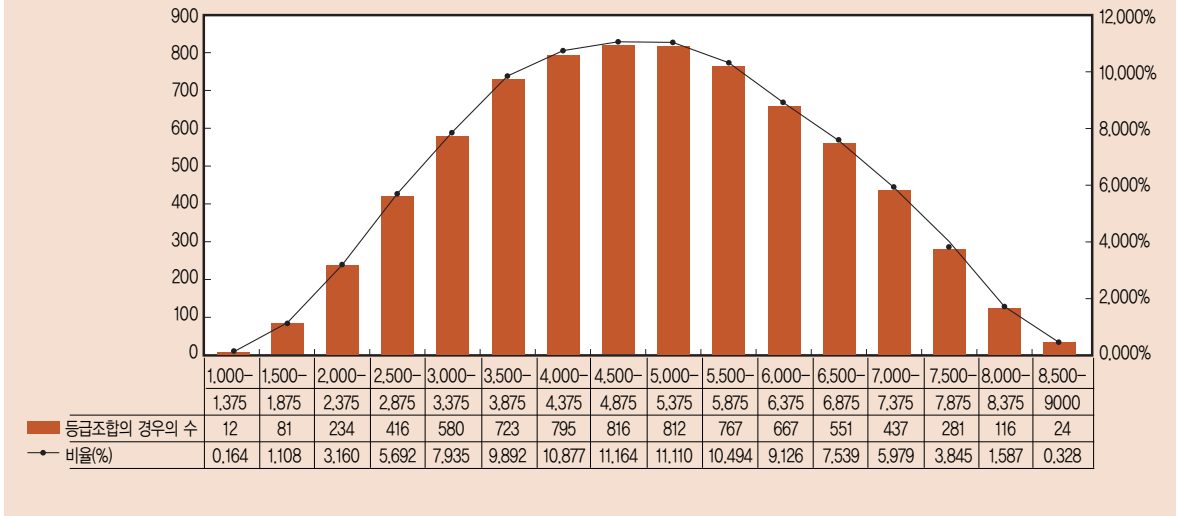


표 9. 최대 등급조합 경우의 수에서의 등급점수 차이(탐구 2과목)

구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평균등급		4,500	4,500	4,500
등급조합경우의 수		238	238	238
빈도수(명)		8,241	8,241	8,241
등급점수	최대값	637.750	352.000	330.000
	최소값	576.000	338.000	295.000
	차이	61.750	14.000	35.000
	평균	603.563	344.420	309.365

표 10. 등급점수가 최대로 차이가 나는 경우(탐구 2과목)

구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4.000	4.250	4.625	4.750	5.000	5.625
등급평균	4,250	7,250	4,000	4,250	4,625	4,750	5,000	5,625
등급조합경우의수	228	115	221	228	186	219	231	176
빈도수(명)	7,966	2,917	7,467	7,966	7,532	8,324	8,044	6,716
최대값	653,500	316,000	345,000	337,500	328,750	322,500	315,000	298,750
최소값	585,250	300,000	310,000	302,500	293,750	287,500	280,000	263,750
차 이	68,250	16,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평 균	611,511	302,833	321,833	315,172	306,710	301,914	296,125	279,835

표 11. 등급점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고려대 방식과 연세대 방식)

구분	고려대			연세대		
	4과목	3과목	2과목	4과목	3과목	2과목
등급평균	3,875	4,333	4,250	5,438	6,917	7,250
등급조합경우의수	527	263	228	549	172	115
최대값	661,875	653,000	653,500	342,500	309,667	316,000
최소값	598,000	584,667	585,250	325,250	299,333	300,000
차 이	63,875	68,333	68,250	17,250	10,333	16,000
평 균	631,124	610,761	611,511	329,843	302,715	302,833

표 12. 등급점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성균관대 방식)

구분	연세대														
	4과목			3과목						2과목					
등급평균	3,313	4,000	4,688	3,250	3,500	4,000	4,333	4,583	4,667	4,000	4,250	4,625	4,750	5,000	5,625
등급조합경우의수	442	562	585	214	236	267	263	287	277	221	228	186	219	231	176
최대값	366,875	345,000	328,125	367,500	360,000	345,000	336,667	329,167	328,333	345,000	337,500	328,750	322,500	315,000	298,750
최소값	331,875	310,000	293,125	332,500	325,000	310,000	301,667	294,167	293,333	310,000	302,500	293,750	287,500	280,000	263,750
차 이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평 균	343,990	325,934	307,886	343,673	337,097	323,722	314,611	308,510	328,333	321,833	315,172	306,710	301,914	296,125	279,835

V. 맺는 말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수능 등급제는 현재의 입시에서는 입시의 정상적 모습을 찾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사교육기관에서 배치표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평균등급이 수능 등급제에서는 무의미한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평균 등급에 등급조합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그에 따르는 등급 점수의 차이는 배치표로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래서 사교육기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등급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최상위권에서는 동점자가 나올 확률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수능만으로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대학들이 조금만 더 연구해서 영역별 반영비율과 등급 간 구분 점수를 달리하는 반영방법을 개발하였다면 최상위권에서는 얼마나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간 등급에서는 같은 평균 등급이라도 등급 조합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등급점수의 차이도 크다. 이 평

균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중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대학별고사도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대학에서는 학생부가 중요한 변별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2008학년도 입시 결과가 발표되어 학생들이 이 현실을 정확히 직시했다면 학생들의 입시전략 수립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수능 등급제의 또 다른 장점은 같은 평균 등급의 등급 조합과 등급점수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대학을 한 줄로 세우는 요소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같은 평균 등급을 가진 학생이라도 본인의 다른 전형요소의 유·불리와 본인의 특기와 적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스펙트럼도 이전보다는 훨씬 넓어진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단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고 다른 장점이 있는 제도를 결과도 보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 등급제에 따른 입시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이를 교육수요자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에 결정을 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여론이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소·개

최병기

현재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중앙위원으로 활동 중이다.